

어머니 조국의 사랑은 언제나 따스하다

- 세기를 이어 올리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들으며 -

지난 9월 6일 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일본 도쿄에서는 종련의 여러 예술단체들과 각계종 동포들이 출연하는 대공연 《우리의 국기》가 진행되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치는 공연무대에는 합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도 울랐다.

제일동포들이 세기를 이어, 세대를 이어가며 부르고 또 부르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이 노래가 공화국창건 75돐을 경축하는 뜻있는 대공연무대에서 다시 울려 오르자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울리었다.

환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격정의 노래. 그것은 해가 갈수록 더욱 따뜻이 보살펴 주는 조국에 드리는 종련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 그리움의 노래였고 이 세상 끝까지 어머니 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굳게 잇고 나아가려는 동포들의 굳은 맹세의 불출이었다.

* * *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일본에서 공연할 때 일이다.

공연종목이 바뀌어 한 나 어린 꼬마독창가수가 무대에 나섰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보낼줄은 꿈에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 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 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무대에서 포랑포랑 울리던 독창가수의 목소리가 점차 가늘어지더니 끝내는 호느낌으로 변하고말았다.

목이 메어 울고있는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초만원의 이룬 극장의 여러저기에서도 관중들이 터지는 호느낌소리가 울리고 공연을 관람하는 제일동포들의 얼굴에는 누구라 할것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 가수도 울고 관중도 울며 함께 부른 이 노래가 바로 제일동포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가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이다.

하더라면 이 노래에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었었기에 그토록 해외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렸었는가.

이 노래는 1950년대중엽 조국에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왔을 때 너무나 감격하여 당시 한덕수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지은 노래이다.

그때로 말하면 조국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전하의 재를 털고 사회주의에로의 첫걸음을 내질어야 했고 여기애다가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인파의 원수들의 준둥은 극도에 달하고있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영웅조선의 기상을 다시한번 떨칠 단호한 결심을 내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은대해 5개년인민경제계획을 내놓으시었다.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를 닦으며 식의주문제의 기본적 해결...

그런데 조국에서는 이 방대한 계획을 비하여 모든것이, 특히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는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의무라고 하시면서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역땅에 살고있는 제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흘러든 사랑의 생명수였으니 허물어지는 교실 아닌 교실에서 백목과 종이마저 부족하여 애래우던 조선학교 교원들과 돈이 없어 배움의 꿈을 포기했던 동포학생들이 아닌 전체 제일동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 만세!》를 감격의 눈물속에 목청껏 부르고 또 부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였다.

꿈결에도 생각지 못했던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제일동포들의 감격과 기쁨, 어머니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곡이 되어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던것이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찬바람부는 이역땅에 깔려가 갖은 민족적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제일동포들이 부른 노래는 《이리랑》이나 《봉선화》와 같은 구슬픈 노래였다.

이런 그들에게 존엄성은 공화국의 해외공민권 공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따뜻한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시는 어머니수령님이시었다.

제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 주신 수령님의 사랑은 참으로 각별하시었다.

주제61(1972)년 8월 18일

조국래왕의 권리를 쟁취한 후 청소년들로서는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한 도쿄조선중고급학교와 요코하마조선중고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 는것인가.

이날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평양학생소년중정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한채 그이의 손목과 옷자락에 앞을 닦으며 달려 감격에 울고웃는 동포학생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손에 과일이며 사랑, 과자도 쥐여주시었다.

제일동포학생들을 사랑의 한풀에 안아주시고 그들이 성의껏 준비한 공연도 보아 주시며 종목이 바뀔 때마다 심함으로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에야 어머니수령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몇번이나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동포 동포학생들은 숨주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역의 새세대들이 참된 조선사람으로 자라나라고 민족악기며 조국의 동식물, 광석표본들을 가슴가득 안겨 주시고 제일동포학생들이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꼭 만나주시고 뜻있는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사랑의 선물까지 안겨주시던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제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이었다.

조국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고 어렵고 힘든 매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머니사랑이다.

1980년 10월 26일은 세계 해운력사에 《죽음의 날》로 기록되어있다.

그날 평양양서부수역을 휩쓴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1만1천이상의 선박들이 수십척이나 침몰되고 태풍중심권을 벗어난 조선반도 남쪽근해에서만도 740여척의 배들이 항망없이 추적을 감수했으며 수많은 인명손실을 보았다.

하지만 그 태풍을 뚫고 수백여명의 제일동포청년들을 태운 《삼지연》호가 조국땅에 무사히 입항하는 《신화》가 창조되었다.

바로 그날 밤 일본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오던 《삼지연》호가 태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배를 구원하기 위한 전투를 몸소 지휘하시었다.

수많은 의사들과 구명기재들을 실은 2만4천여명전방해군 해군함정들이 산같은 파도를 헤치며 태풍수역으로 달려가고 《삼지연》호에서는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사나운 풍랑으로 침몰의 위기에 처하였던 《삼지연》호가 조국의 항구에 무사히 입항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학생들에게 돌려주시신 사랑과 온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늘같은 이 사랑에 떠받들려 어머니수령님 탄생 70돐이 되던 해 봄 일본에 있는 유치만어린이로부터 초급학교학생에 이르는 동포자녀 모두에게 3부리씩 차례질수 있는 희귀한 산삼이 안겨지고 조국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제일조선학생

들을 위해 특별렬차가 달리는 전설같은 이야기들도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를 주시면 열을 주고 싶어하시고 열을 주시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데 제일조선학생소년들에게 배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스한 사랑이었다.

어느때인가 자금이 긴장하여 총련에 보내주기로 한 교육원조비의 나머지 돈을 보내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에서 우리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한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고, 금덩이를 팔아서라도 꼭 해결시키지 말고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깃든 사랑의 이야기는 민족총련의 국상의 나날에도 이어졌으니 어머니수령님께서서 너무도 절절하게 우리곁을 떠나신 5천년래의 대국상이 있는 그해 12월 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서 신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기간을 변경시키거나 그 량을 줄이지 말고 수령님께서 기실 때와 꼭같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기쁨 떠나 술을 떠나 병환없이 어머니수령님과 똑같이 마음속으로 총련과 민족교육을 생각하고 세세대 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들처럼 일군들은 숨주치는 격정의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예산항목이 생겨난 때로부터 어린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조국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 주제112(2023)년 4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머니수령님 탄생 111돐을 맞아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6 730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169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93억 9 787만 390원에 달한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동포자녀들에게 돌려주시신 사랑의 력사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 있는것이다.

어찌 이뿐이라.

총련의 민족교육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제14차 전국국원대회에 총련교육원대표단을 불러주시고 대표단성원들을 모가짜기 부르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모신 붉은기름 배경으로 특별히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데도, 창립 65돐을 맞는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시고 대학이 나아가 알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도 뜨겁게 깃들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 제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길 진로와 목표를 환히 밝혀주시고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을 해외혁명동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혈액으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창성 60돐을하여 총련은 사회주의적합력,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혈액으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말고오신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이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말고오신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운명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것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어머니조국과 한피줄을 이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 제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 그것은 곧 모든 해외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

하기에 해외동포들은 진정한 조국인 공화국과 한피줄을 이고 사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는것이다.

해외동포들의 진정을 담은 이역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해외동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더없는 행복을 담고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는 더욱 힘차게, 더욱 뜨겁게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 《우리의 국기》중에서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의 2023년 새해설맞이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중에서

총련 소식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제 27 차 정기총회 진행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제27차 정기총회가 16일 일본 미에현에서 진행되었다.

박우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 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위원장, 현 대식 경제국장, 최병호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청상회 성원들이 총회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온 축하인사록화전집물이 상영되었다.

최병호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명남 중앙상임간사회의 인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청상회가 민족교육지원사업과 기증조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사한을 높이 받들고 청상회의 전진사업을 상승개도에 올려세워나가기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민족교육을 비롯한 애국애족운동들을 선두에서 주도하는 조직으로서의 청상회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이어 《청상회상생취원운동》에 대한 표창사업이 있었다.

박우호제1부 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사한에서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를 제일조선인운동의 주력군후비대역으로 내세워주시었다라고 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우리 민족연단 2023》일본에서 진행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의 주최로 《우리 민족연단 2023》이 17일 일본 미에현에서 진행되었다.

최후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겸 박우호제1부 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부위원장, 현 대식 경제국장, 총련본부위원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김민관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 김철규 미에현 청상회 회장을 비롯한 각지 청상회 성원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는 《이어가자! 미에, 용을 쓰자! 우리 마음 하나로 모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조국에서 보내온 축하공연전집물과 애국선대들이 개최

강령적사한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애국애족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계승하여 동포사회와 우리 학교를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 언제나 앞장서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동포사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모두가 단결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질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최후반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민족연단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동포사회에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상회의 기개, 동포사회의 참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인의 믿음속에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작가 (3)

작가 조영출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처음으로 만나본것은 주제38(1949)년 12월초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는 신두에서 주도해나가며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으로 김민관이 새로 선출되었다.

조영출은 민요화된 현대풍 가요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민요풍조에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의 사상과 정서를 반영한 가사를 붙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좋아하시고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었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민요 《모란봉》이다. 이 민요는 흥취의 수도를 이 강산 좋은 곳에 두고있는 공화국 인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어머니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 민족적자랑감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조영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대 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곡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밭이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밝은 태양아래에서》 등 수많은 가곡창작사업에 조령출을 내세워주시었다.

조영출은 날이 갈수록 더 해반가는 절세위인들의

작가 조영출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처음으로 만나본것은 주제38(1949)년 12월초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명도하시는 신두에서 주도해나가며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을 하나로 모아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으로 김민관이 새로 선출되었다.

조영출은 민요화된 현대풍 가요를 창작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민요풍조에 들끓는 사회주의현실의 사상과 정서를 반영한 가사를 붙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좋아하시고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내었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민요 《모란봉》이다. 이 민요는 흥취의 수도를 이 강산 좋은 곳에 두고있는 공화국 인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어머니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 민족적자랑감을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조영출은 종래의 민요를 현대 한 장군님께서 혁명가곡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밭이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밝은 태양아래에서》 등 수많은 가곡창작사업에 조령출을 내세워주시었다.

조영출은 날이 갈수록 더 해반가는 절세위인들의



본사기자 라국